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시는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에게는 아버지와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 인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없어서 모든 짐을 여호수아가 홀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려는 이들 앞에는 두 개의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 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여서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모두 데리고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노예로, 광야에서는 목동으로 살아온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소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전투력을 높이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투력의 증강을 원하셨다면 이 거사를 앞에 두고 신체적 기력의 감소를 초래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강하라’는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온전히 서 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무언가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담대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사명의 길이 어려워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희망과 염려가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유례없이 두렵고 떨리는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담대하면 반드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시작의 사람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아시다시피 ‘아담’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사람입니다. 그가 행한 것은 인류의 첫 경험이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담 안에 모든 세상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을 보면 우리를 볼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

하나님께서서는 완벽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צלם’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유사하다’, ‘무엇과 무엇이 동질이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צלם’은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고려하면 세 번째 의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을(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형상으로 만들면, 그 ‘우상’이 신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모양’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어떤 한 조각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하나의 현상을 보고 앞뒤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속성을 이렇게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후에,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완성의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그 땅의 완성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서서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키고 중재하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를 미완성의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고, 하늘의 생명과 땅의 흙이 연합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 1:26-31)

이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이 땅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 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하늘을 올려다 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사명받아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죄에 빠져
기능과 존재의 능력 상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죄인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대신 죽은 짐승의 가죽옷 입히심으로
제사장의 사명 주시고
‘여자의 후손’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완성하심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죄의 시작

그런데 아담에게 또 하나의 시작이 옵니다. 바로 죄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이 땅의 흙을 담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모든 지식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의 기능과 존재의 능력을 다 상실합니다.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먼저 그들의 ‘시선’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었는데 죄악의 눈이 열리면서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큰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함께했을 육신과 생명

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그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런데 오늘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숨어 있는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의 그 역할이, 중재자로서의 사명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불러내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만든 옷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서 그 짐승을 죽이시고, 대신 그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가죽을 그들의 옷으로 입히신 것입니다. 레위기 7장 8절은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라고 기록합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으면서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인류를 회복케 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는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후 셋으로 이어진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6). 그리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아담’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죄악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긴 대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의 마지막 해결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으로 성취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겨 내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두 번째 아담’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맺음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담에게 이미 담겨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바라보아야 할 것들에서 시선이 빗겨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흠어진 시선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길을 찾아가는 표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장년교구섬김조직

한 교회 안의 일곱 교구

코로나로 지연되고, 리더십의 교체로 미뤄진 교구개편이 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난히 오랜 기간 함께했던 구역식구, 교구원들이 흩어져서 낯선 지체들을 알아가고 마음을 맞추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목사님은 바뀌었지만 목양체제의 큰 틀은 교구제를 지속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구담당교역자는 목사님 한분으로 지정돼서 일차적인 목양은 교구를 통해서, 보완적인 목양은 세대별 목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한 교구를 늘린 7교구제로 보완되었습니다(교구별 담당 교역자와 섬김이는 아래 도표 참조).

교역자와 장로님, 그리고 담당 중직자들이 TF를 결성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며 연구하고 숙고한 후에 결정된 체제이니, 정해진 시스템이 순적하고 원활하게 작동되고 목양적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다만, 여러 장점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교구제도는 '한 교회 안의 일곱 교회'로 기능할 수 있는 관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구제도가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는, 열린교회 지체들이 어느 교구에 소속됐는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목양을 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담임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교구목사님들이 서로 발맞추어 '함께 그리고 나란히' 목양해 주실 때,

교구시스템의 단점은 최소화되고, 어느 교구에 속했는지는 성도들의 교회생활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해화될 수 있는 이 목양의 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길 잃은 자들이 이정표를 찾는 생명의 역사가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가득차게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함이 필요한 때입니다.(편집부) ☆

1교구



교역자 이성도 목사

시무장로 금성철 장로
황철호 장로

총팀장 장정수 집사

남성총무 이계상 집사

여성총무 강민옥 권사(정)
이수경 집사(부)

회계 홍영이 권사(정)
권금옥 집사(부)

서기 전상연 집사(정)
양규남 집사(부)

2교구



교역자 최성기 목사

시무장로 성경열 장로
김춘경 장로

총팀장 마규완 집사

남성총무 백인봉 집사(정)
나동훈 집사(부)

여성총무 임채자 권사(정)
나근주 권사(부)

회계 김효숙A 집사(정)
유경숙 집사(부)

서기 신준영 집사

3교구



교역자 류요한 목사

시무장로 이동훈 장로
박희준 장로

총팀장 정범용 집사

남성총무 백승태 집사

여성총무 고은하 권사

회계 원미영 권사

서기 이동환B 집사

4교구



교역자 권경철 목사

시무장로 박기준 장로
이영춘 장로

총팀장 조석봉 집사

남성총무 양석주 집사

여성총무 김하자 권사(정)
김명자G 집사(부)

회계 오희열 집사

서기 이승근A 집사

5교구



교역자 명성인 목사

시무장로 구용회 장로

총팀장 강원진 집사

남성총무 윤형진 집사(정)
유병재 집사(부)

여성총무 박정화 권사(정)
박은정 권사(부)

회계 김혜정B 권사

서기 진기웅 집사

6교구



교역자 심재운 목사

시무장로 김기현 장로
김용연 장로

총팀장 안성철 집사

남성총무 박용진 집사(정)
박창일 집사(부)

여성총무 김명정 권사

회계 백은정 권사

서기 최미선 권사

7교구



교역자 정대한 목사

시무장로 박정갑 장로
김대영 장로

총팀장 오기용 집사

남성총무 강성만 집사(정)
황선범 집사(부)

여성총무 장동금 권사(정)
최인선 권사(부)

회계 황성순 권사(정)
신미현 집사(부)

서기 김동웅집사



다음세대사역위원회Q&A/손하람 목사님(교회학교디렉터)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계승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2015년도에 '교회학교 디렉터' 직책이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고, 4번째 디렉터로 부임하시게 된 소회 부탁드립니다.

열린교회가 시작된 1993년 12월, 그 달에 교회학교도 함께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열린교회 교회학교 연혁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편집부). 현재 교회학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을 300여 명의 교사와 13명의 교역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세대사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중앙 위원회로 편입되어 세 분의 장로님(위원장:이영춘 장로님/위원: 박정갑·구유희 장로님), 교육지원부장님과 함께 교회학교를 더욱 꼼꼼하게 돌보고자 합니다(교회학교섬김조직도는 2025년 3월호 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편집부).

교회학교 디렉터는 위원회의 교역자들, 장로님들, 부장님들과 소통하며 교회학교의 전반적인 양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배 디렉터 목사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든든히 다져온 사역의 토대 위에서, 저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기쁨으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교회학교의 비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동안 열린교회 교회학교 교육은 미래세대의 '회심과 회심의 보존'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교육의 목표와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열린교회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심과 그 보존입니다. 회심이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심의 경험 없이는 진정한 교회학교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인 방향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2025년, 교회학교 교육지원부는 '교육기획팀'과 '학부모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한 부서나 한 교역자의 노력을 넘어 온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기획팀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모색하고, 학부모협력팀은 학부모님들의 서로 연결된 기도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더불어 담임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교육'의 인식을 공유하고, 성경적 삶이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등불학교와 등대학교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지혜교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혜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이를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적용하며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담임목사님께서 교직원들에게 시작하신 잠언강해를 바탕으로 교회학교 교역자들이 연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등불학교에서는 기독교 진리와 개혁주의 교리를 기초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한해는 이 진리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새작편지와 등불학교와 등대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교회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님께서 이번 새해말씀사경회에서 '지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길 예정이어서, 사경회 이후 이를 통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부 통합 이유와 통합 이후에 청소년부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부서는 청소년부와 청년부입니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급속히 진행되는 세속화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다음세대' TF에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본질에 집중하고자 청소년부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청소년부는 예배와 목양, 학생 자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예배가 매주 뜨거운 감격으로 드러질 수 있도록 예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치 수련회의 예배처럼 남다른 기대와 준비로 임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에 집중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는, 중1~중2, 중3~고1, 고2~고3을 각각 1국, 2국, 3국으로 세분화하여 각 국마다 전담 교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더불어 새가족과 보조하는 부사역자 2분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교역자가 보강되어 학생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자치회를 신설해 선배와 후배 간 교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살 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한 부서로 묶어서 같은 설교를 듣게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부 교역자들이 통합을 준비하며 가장 깊이 고민했던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탐방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의 사례를 연구하고, 공통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만 각 교회의 환경과 기준이 다르기에, 열린 교회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예배시 설교는 1국부터 3국의 교역자가 매주 돌아가며 설교할 것입니다. 3주마다 설교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설교자가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깊이 연구하여 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설교와 공과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이들의 은혜받은 말씀의 지속성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역시 설교 방향을 미리 공유받아 공과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 교회학교의 큰 강점은 학생들의 설교 경청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점입니다. 제가 고등부에 부임했을 때 학생들의 예배 태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타교회에서 부임한 교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 설교에서 사용하는 예화는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부는 학년별 목양은 촘촘하게 진행되, 통합예배를 통해 모든 학생이 같은 예배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의 보존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많은 부모님의 깊은 고민과 남모를 눈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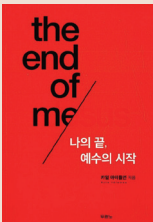
부모는 자녀를 통해 진정한 부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여정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역 식구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같은 부서의 학부모님들과 선배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 세상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

추천도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도처에 왜냐고 묻고 싶은 일들이 수도룩하다. 고뇌하는 개인을 넘어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망가졌다는 절망감이 뒤덮고 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에 대해 다룬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에 맞닥뜨린다. 카일 아이들먼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재를 만나는 현상이 된다면,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한다.... 내가 죽고 끝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눈감는 한 인생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 책은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의 이성도, 직관도, 문화도 뒤엎는 예수님의 방식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이 땅에 젖어 사는 우리를 흔들며 깨운다...(출판사 서평)



1월 주요사역

- 2일(목) 교직원가족시무예배
- 4일(토) 온세대아침예배
- 5일(주일) 청년부 새내기 성년식
- 6일(월)~13일(월) 사경회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 14일(화)~16일(목) 새해말씀사경회
- 18일(토) 중직자기도회
- 19일(주일) 성찬식
- 22일(수) 릴레이기도 헌신자모임

구약개관학교 후기

끝까지 완주하는 마라토너처럼



이은경 장년1교구
sk9531@hanmail.net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주간의 긴 여정으로 구약개관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시는 김대웅 교수님이셨는데,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대해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훑어보겠지만, 방대한 양의 구약 전체를 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솔직한 말씀과, 그 대신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성경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느껴지도록 강의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약개관학교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부터 중장년, 청년부, 거기에 부모님을 따라 참여하는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매주 생동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의 허전함을 달래주기 위한 맛난 간식과 차 한잔의 여유, 유치부 친구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놀아주셨던 진행 준비 권사님의 세심함은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주간의 여정 앞에서 42.195km 완주를 소망하는 초보 마라토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발점에 선 초보자에게 느껴지는 설렘, 긴장감....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즉 당신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이 아리게 느껴졌습니다.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간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없이 행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의 미련함을 지켜 보며, 그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하여 끝까지 지속됨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시금 현재의 나를 점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매 권마다 새롭게 알게 되고 느꼈던 점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각 권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욥을 통하여서는 성경 속의 평면적인 인간이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입체적인 인물로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파란만장하며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허점투성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참아주시심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 끝까지 참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가?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만 믿고 오만방자한 것은 아닌가?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노년을 잊지말고 기억하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권리를...’

역사서를 들여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은 돌고 돌 뿐 아니라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는 너무나 죄된 본성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그들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기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짧지 않은 길을 뛰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달려갈 길은 먼 것 같지만, 중간 중간 교수님의 친절 한 안내는 구약 전체를 잘 연결해 주셨습니다. 좀 힘들었던 점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10주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구약 전체에서 좀 더 깊게 사무엘서나 다니엘서, 욥기 같은 책에서 인물 중심으로 개관서와 성경통독을 함께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전 구약개관학교를 수료하였지만, 다시 참여하게 된 이번 수업은, 주바라봄성경읽기의 연장선으로 성경통독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토너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그 길을 맡깁니다. ☆

경주자

부르신 곳, 부르신 분

 ‘경주자’를 쓰기 위해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절로 떠오릅니다. 2023년 11월, 저는 제가 이곳 열린교회에 있게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돌아보니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열린교회로 부르셨고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 저의 죄와 연약함의 끝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회심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 부르신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섬기며 나아가다 보니 이곳 열린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심했을 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해 어디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나의 영광과 안전을 구하며 살게 되는 저의 모습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명의 자리인 찬양인도를 통해 예배를 인도해야 할 때 스스로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김다영 청년부새가족 담당전도사
dayu15@naver.com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1:9).’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저를 부르셨고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죄인인 저를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억하는 것, 어디서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가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올바른 길을 찾고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14:6) 말씀하셨듯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보다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소망합니다. ☆

주일에배순서 안내

〈1~3부 예배〉
목도-찬송가1장-사도신경-찬송가3곡-합심·대표기도-헌금-헌금기도-새가족안내·성도의 교제(광고)-성경봉독-설교-합심기도-찬송가(설교주제찬양)-축도

〈4부 예배〉
사도신경-찬양(20분)-합심·대표기도-헌금-헌금기도-새가족안내·성도의 교제(광고)-성경봉독-설교-합심기도-찬송가 및 복음성가(설교주제찬양)-축도

공간 용도 변경 안내

대세미나실1(본관2층): 교역자실
대세미나실2(본관2층): 중·소세미나실
사무국(본관2층): 통합회의실
회의실(본관2층): 친교실
당화실(본관3층): 다목적실
접견실(본관3층): 재정팀 사무실
세빛빌딩 교구실 및 센터실: 소그룹실(공과교육 및 구역모임)
열린빌딩6층: 중예배실 및 소세미나실(공과교육 및 구역모임)
열린빌딩7층: 중예배실 및 소세미나실(청년부모임)
열린빌딩1층: 청소년부예배실(조성중)

종직자 은퇴식

지난 12월 29일(주일) 10시 예배 후에 본관 3층 예배실에서 김남근 장로, 광동창 집사, 금옥연 권사, 김정업 권사에 대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 장년	▶▶ 청년	
한상정(62)	도현정(91)	서누리(87)
유영애(62)	심재용(85)	정유형(96)
한동섭(58)	김진욱(42)	김주환(96)
안선영(61)	황유라(97)	양대경(04)
문성만(93)	김현숙(66)	나유림(90)
안현정B(91)	홍사영(53)	신남혁(98)
김준우(72)		김진희(91)

목사안수 후기

목자의 심정으로

수년 전의 일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어느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이가 지긋하신 모교회의 목사님께서 축사를 맡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요한복음 21장 15-23절을 본문으로 삼아, 목양 위임의 은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목사님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평소 자주 부르시던 찬양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협산준령 헤매이는 어린양 찾아
우리 주님 산 가시에 찢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불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찬양이 끝나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가사를 가슴에 새기며 목양 위임의 은혜를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신 뒤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찬양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미하는 것을 넘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새기게 합니다.

목회자는 주님께로부터 목양 위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목회자는 맡겨진 자리에서 양들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날 축사를 맡으신 목사님은 이 찬양을 통해 목회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둔 제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목회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화를 떠올리며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목회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목양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맡겨주신 영혼들을 성심성의껏 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 받은 목양 위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



김진산 청년1국 담임목사
jesusinme1991@naver.com

북한선교세미나 후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온누리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삼천 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모인 자리였다.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시간에, 이전에 어떤 영상도 정보도 접한 적 없는 초등학생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북한영상이 보이는데, 아이들과 아기들이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선교사님께서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같이 갑시다! 같이 갈 사람 일어서세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일어났고, 주변을 둘러보니 거의 모두가 일어서 있었다. 그날 일어난 친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선교를 위해 일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대학시절 방황시기 때, 뉴질랜드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당시 CBS에서 목회자 자녀를 위한 어학연수 광고를 보고, 일반인도 갈 수 있느냐고 문의했는데, 금액이 내 수준에서는 엄청 비쌌다. 담당자분은 뉴질랜드 선교사님께 여쭙보시고 한참을 지나 연락을 주셔서 오라고 하셨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했을 때 비자 발급과 교통, 학교생활 등등을 도와주신 분이 (지금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조성용 목사님이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 때가 타향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방법과 태도, 받는 입장에서의 올바른 자세 등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내가 워낙 영어를 못해 한국 사람 중에서는 나 혼자 별관에서 중국 친구들과 수업을 들었는데 나는 그들을 교회에 데려가 같이 예배드리곤 하였다. 그들이 중국에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 세우길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결혼하고 남편 교회에 출석하던 중

교리적으로 좀 이상하다 생각되어 고민하다가, 뉴질랜드에서 ‘죄죽임의 교리’ 설교테이프를 듣고 은혜 받은 생각이 나서 열린교회에 편지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열린교회로 오게 되었다.



교회에서 정착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북한선교 아웃리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다. 그 이후로도 지연희 집사님 기도제목과, 김영란 권사님의 꾸준히 이어지는 북한선교활동 소식을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은혜만 받고 돕지 않았던 나의 죄된 모습도 보게 되었다. “앞으로는 선한 일을 하세요!” 담임 목사님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가, 이제는 참되게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때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었지만, 모든 게 내 중심이었다. “왕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복하여라! 이것이 영혼 양육의 기본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북한선교세미나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시어 울먹이시며(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눈물) 하신 첫 말씀이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



김혜정 장년5교구
ottunge@gmail.com



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선교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선교사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흔적이 되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이 없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예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목상 중에 주신 말씀이 내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께 들려지고 지금 내게도 들려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아, 그래서 북한 지체이든지, 남한 지체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으셔서 불러 주시면 변화되고 믿어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구나! 그 시간이 아브라함 때이든지, 요셉의 때이든지, 베드로의 때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담임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중에서 사람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설교하신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선교에 대해, 특히 북한지체들이 한 성도가 되기까지 나와 다르지 않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북한선교를 열린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새삼 감사로 다가왔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때에 작은 도구로라도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행복한 사람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안심되고 즐겁습니다



권경란 장년3교구
hohoyosa@hanmail.net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두 아들의 엄마인 저는 '가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가정사역 섬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연년생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은 제가 키우기 버거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항상 반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것은 끝까지 요구하여 얻어내는 아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힘겨움 가운데 있다가 상담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내 마음을 먼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 45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바른생활'로 길들였던 나의 행동과 속마음이 불일치하게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은 가리고 행동은 보기 좋게 포장하는 불일치 가운데 주위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또 리더로서 많은 일을 하며 힘은 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깊은 내면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철저히 내 중심적인 죄성으로 자녀를 힘들게 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무지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저를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신앙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친가와 외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이는 행사는 항상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저의 성장 발달 시기에 따라 놀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소속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봉사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큼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무지로 자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길과 진리요 생명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용기 내어 다가가고 표현하며 성숙한 엄마의 꿈을 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놀라기도 하지만 피하지 않고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진솔하게 다가가고 표현하면서 엄마와 아들, 가족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 또한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기다리면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스스로 외면하고 부끄러워 포장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만나더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위로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힘이 나고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엄마의 무지와 상처로 힘들었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복된 선물로 받게 되었고, 손자가 유치원에 가면서 아들 내외가 고민하면서 부탁한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자의 유치원 하원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서울과 평촌 사이의 왕복 3시간 거리를 일 년 동안 다니면서 돌봤습니다. 계속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옆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찾던 중에 열린교회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 일치된 마음으로 열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 예배에서 김성진 목사님의 성경 중심적인 해석과, 친절하면서 따뜻한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60이 넘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심히 가르쳐주는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새가족교육과 성장반에서 창조, 죄,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고 교육을 담당하신 전도사님의 정성 어린 이끄심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바쁘고 지치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지친 영혼들이 안전하게 서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소통하며 위로 받고 새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러가길 바라며,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작은 통로가 되는 것이 저의 노년의 꿈이고 기도제목입니다.

끝으로, 저희 시어머니 묘비에 새겨진 구절이며 제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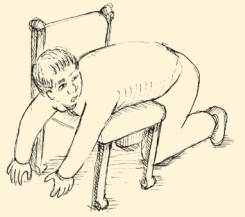
곰곰이 생각

깨어있는 사람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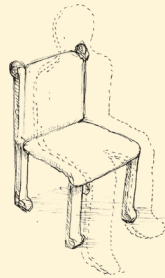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깨어있다면
물러날 때를 압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뒤늦게 깨어나면
물러나야 했을 때를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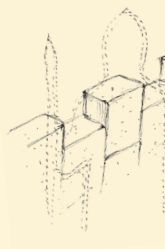
저 자리가 뭐라고!

깨어있다면
지켜야 할 자리를 압니다.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뒤늦게 깨어나면
지켜야 했던 자리를 알게 됩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와 당신이
새해에는 깨어있는 사람이길,
혹여 잠드는 날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깨어나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나
이사야 55장 10-11절



2025 새해말씀사경회



온라인 방송 | 열린교회 유튜브 채널

예수!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잠언 3:18)

일시 1.14.(화)~16.(목) 오후 7:30

장소 예배실(본관1층.3층)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2025 교회학교 새해말씀사경회

유아·유치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요
유년·초등·소년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어린이
사랑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박승훈 권세원 이해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정오 12시 (세빛빌딩 5층 중국어예배실) 中午 12点 (世光大厦 5楼 中文礼拜部)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